3 - AUG - 9
Copy ______ 1960

최한진 그림

시사만화잡지

활살

№10 (59) 1955.10

형제

어머니의 마음은 그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원 어쩌면 이렇게 어글어글한 눈매까지도 꼭 형제 같을까! 글쎄 우리 모녀의 생명을 구원해 준 왕 동무가 우리 봉춘이와 같이 평양 복구 건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참 세상에는 희구한 일도 다 있지—

어머니는 아들 봉춘이와 왕 동무가 손을 꼭 쥐고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에서 언제까지나 눈을 떼려고 하지 않았다.

리 봉춘 중사는 평양 복구 건설장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와 함께 이 사진을 보낸 것이다.

◇ ◇

1950년 12월 장진호반 전투에서 미군 26 사단을 포위 섬멸한 중국 인민 지원군의 한 부대는 고원군 성남리에 얼마 동안 머물르게 되였다.

아들을 전선에 내 보내고 딸 봉순이와 둘이서 사는 어머니의 집 사랑에도 지원군 용사들이 들게 된 바로 이튿날 새벽이다.

—우리 마당에서 누가 저렇게 눈을 치고 있을까?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이 나게 문 밖으로 나가 보았다

—아니 지원군 동무가 눈을 치다니?! 이런 미안할 데가 있나 원!

어머니는 얼른 젊은 지원군 동무의 손에서 눈가래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지원군 전사 왕 덕창 동무는

어머니! 호! 호! 하면서 눈가래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그만 두라니까!

—어머니! 괜찮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싶으나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데서 손짓 몸짓을 하면서 말썽갱이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지원군 동무들까지 우루루 나와서 잠간 사이에 마당의 눈을 다 쳤다.

—원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라니 그 아키 같은 원쑤놈들에게 대면 아주 딴 세상 사람들이라니까!

어머니는 다만 한량 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가슴이 후더웠을 따름이다.

아침이 되자 우물가에서 찬 물로 쌀을 씻는 지원군 동무들을 바라본 어머니는 부엌을 향하여 딸을 불렀다.

—얘 봉순아! 너 저 쌀 좀 일어 드려라!

봉순이는 곧 우물로 갔으나 그들은 끝끝내 쌀통을 내 주지 않았다.

—원 저렇게 꼿꼿한 사람들 봤나! 봉순아 그럼 더운 물이라도 내다 드려라!—이렇게 하여 마을 사람들과 지원군 동무들은 친 부모 형제와 같이 친근하여 졌다.

두어달이 지난 어느날 새벽이다. 야수 같은 미제 원쑤들은 산간 벽지인 이 마을에도 악착스럽게 무수한 폭탄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고요하던 마을에는 비명 소리 아우성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왔다.

마을 뒷산 중턱 대피호까지 달려 올라간 왕 덕창 동무가 불길 솟는 마을을 뒤돌아 보았을 때 그의 머리에는 어머니와 봉순이의 얼굴이 번개치듯 떠 올랐다.

그는 발길을 돌려 나는듯이 마을로 달려 내려갔다. 어머니와 봉순이가 대피하고 있는 방공호의 입구는 풀석 주저 앉아 있었다. 그는 재빨리 방공호를 파내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잃고 느러진 어머니와 봉순이를 왕 동무는 부대 군의소로 업어갔다. 지원군 군의들의 응급 치료를 받은 어머니와 딸은 죽음의 길에서 다시 소생하였다.

한동안이 지나서 새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 보던 어머니는 자기의 머리맡에서 이마에 피묻은 붕대를 감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유심히 내려다 보고 있는 왕 덕창 동무를 이미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심장에선 불덩이 같은 무엇이 뭉클하였고 두 뺨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며칠이 지난 후 지원군 동무들은 부락민들의 토굴집 건축을 도와 주었다. 어머니는 구슬 땀을 흘리며 일하는 왕 동무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왕 동무는 훌륭한 우리 아들이야!—어머니의 말뜻을 알아 채린 왕 동무는 —호! 호! 어머니 우리 어머니!—하고 벙글거리며 신이 나서 일을 하였다.

그럭저럭 겨울도 지나고 이른 봄이 되였다. 지원군 부대는 이 마을을 떠나가게 되였다. 어머니는 왕 동무를 조용히 불러서 봉순이가 누에 막 고치 실을 꼬아서 떠 논 조끼를 내 주었다.

조끼 앞섶에 새겨진 형제(兄弟)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는 순간 왕 동무는 어머니와 봉순이의 뜨거운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

그 후 어머니는 전선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 왕 덕창 전사의 이야기를 상세히 써 보내면서 —어데서나 꼭 찾아 보라—고 부탁하였다.

어머니는 하루도 왕 동무를 잊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벌써 4년이나 되였으니 그동안 자기 부대와 같이 고국으로 돌아 간 줄로만 생각했던 왕 동무를 얼마 전에 평양 건설장에서 만났다는 아들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어머니는 뚫어질듯이 드려다 보던 사진을 들고 방공호가 있던 뒷산 밑으로 올라 갔다 잿더미로 되였던 마을에는 아담한 새 집들이 일어서고 협동 조합의 드링논과 밭에는 오곡이 탐스럽게 여물어 물결치고 있다.

—6억만 중국 인민들과 우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형제처럼 있는 한 다시는 어떠한 원쑤들도 우리의 땅에 들어 오진 못한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낮윽히 웨쳤다.

석 봉

한결 같은 념원

조선에서의 전쟁이 종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문제는 아직도 조정되지 않았다 현 조건 하에서는 남북 조선 간의 련계의 설정 및 발전 그리고 조선 통일 회복에 관하여 앞으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조정 사업에서 제1차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는 조선 인민을 포함한 전세계 인민들의 한결 같은 념원이다

송룡남 그림

『놀랠건』 없다

남조선에는 지금 몇몇 『열렬한 분자』들에 의하여 『창작된』 아주 『놀라운』 말이 떠돌고 있다.

—북으로부터의 『남진』— 그리고는 전체 『국군』에게 —『림전 태세』를 갖추라! — 고……

그런데 이 『놀라운』 말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로 해서 그들 『열렬한 분자』들을 정말 『놀래게』하고있다.

보라! 그들 —『열렬한 분자』들의 열렬한 호소에 대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조금도 『놀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남진』이다 『림전 태세』다 하고 웨치는 그들 『열렬한 분자』들을 저오기 놀랜 기색으로 대했기 때문에……

글쎄 간단히 한번만 생각해 보자! 그렇게도 미친듯이 『북진』 구호를 짖어대기에 거품을 물던 그 『열렬한 분자』들의 입에서 이젠 갑자기 북으로부터의 『남진』을 떠벌이는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조선 인민들은 잘 알고 있다.

"불지른 놈이 먼저 불이야! 한다는 것을……

10년 간이란 세월이 아무리 짧지는 않다손 치드래도 어찌 지난 사정을 잊을 수가 있으랴? 하물며 남의 일 아닌 자기들의 문제에 있어서인데야……

글쎄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자! 그한때 누가 『결사 반대』를 웨치면서 조국의 통일을 반대하여 왔느냔 말이다.

그렇다면 인제는 어떠한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덮어 놓고 거절』하면서 『북진 통일』을 웨치는가 하면 또 난데 없는 북으로부터의 『남진』이니 『림전 태세』니 하고 엉뚱한 말을 떠벌여서 인민들을 『놀래게』하려고 한다. 그러나 도대체 이에 『놀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이다.

오늘 보통 량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 인민들의 생각하는 바는 다 같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공통한 생각—평화적으로 통일된 한 가정에서 보다 행복스럽게 살고 싶어 하는 념원이 있을 뿐이다.

누가 『북진』을 지지하며 『남진』이란 말을 믿는단 말이냐?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단일한 민족으로 함께 살아왔으며 또 살기를 원하는 조선 인민들이 분렬되여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10년 간이나 서로가 남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으며 지어는 부모와 아들 딸 간에 부부와 형제 간에 헤여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절실한 념원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 방안을 『덮어 놓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북진』이니 북으로부터의 『남진』이니 하고 전쟁에 대하여서만 기를 쓰면서 짖어대는 몇몇 『열렬한 분자』들이 이 념원을 가로 막으려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조선 인민들은 명백하게 해명할 수 있다.

문제는 그들—몇몇 『열렬한 분자』들은 전체 조선 인민과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즉 그들은 조선 인민들의 행복과는 인연이 없는 대양 건너 상전의 리익을 위해서 복무함으로써 자기들의 『행복』을 구하려는 미국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것을……

그러니 그들 몇몇 『열렬한 분자』들의 본질은 결코 조선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과는 합치될 수 없는 『열렬한 배족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그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북진』을 웨치며 또 무슨 피를 가지고서 북으로부터의 『남진』이란 말을 떠벌이는 가도 잘 알고 있는 조선 인민들이 오직 한가지—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념원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하여 물론 누구나 새삼스레 『놀랠건』 없다.

송 화

사람이 밖에서 찾는데 왜 문을 안열어 주는가?

리영춘 그림

전체 조선 인민들은 남북 조선을 인공적으로 격리시키는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등의 교류를 조직하며 남북 조선 인민들 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의 접근을 촉진시킬 것을 한결 같이 념원하고 있다

앞 못보는 『숫자』

보다 더 새롭고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빈틈 없이 딱 째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그들은 말을 한다。 이를테면 량적 질적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보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특출한 재능에 대하여 각별한 인정을 받게 될 것도 『계획』하면서……

—보라지! 우리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그런데 일부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성이나 관리국에서 시달되는 국가 계획 과제를 받게 되면 그를 실행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해 치우고 만다。

『상부』는 『중간』에게 『중간』은 다시 『능난한 사람』에게 실정에 알맞는 『훌륭』한 실행 계획을 작성하라! 고…… 그러면 『능난한 사람』은 책상에 붙어 앉아 비상한 정력으로 숫자들을 끈기 있게 짜 내면서 계획을 작성한다。 선진 기술 서적은 보나마나…… 문헌도 연구하나마나…… 회의에서 듣고 배운 『풍부한 상식』으로 하여 휑하니 들여다 보이는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서 아주 『훌륭』하게 계획을 작성한다。

—복잡스레이 쫓아 다니면서 물어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실정에 알맞는 계획을 작성할 수 있지 않는가……

재빨리 작성된 『훌륭』한 계획서는 무사 통과로 올라가 『상부』 앞에 놓인다。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하느라고 노력은 해 보았습니다만……』하고 ……

『이러면 국가 계획을 금액 상으로나 품종 별로나 문제 없이 초과 실행할 수 있겠군 ……』

위신 있게 『신중』한 검토를 하고난 『상부』도 저으기 만족해 하는데……

『그렇습니다 초과 실행은 무난하지요 세밀한 조사에 근거한 과학적인 숫자닝까요……』 서슴치 않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면서 손끝으로 종이 우에 숫자들을 더듬는 『능난한 사람』들……

—이분이 현명하게 보시거든— 하고 흐뭇한 기분이 된다。

이렇게 『비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창의작성』한 계획서는 참모장의 작전 계획보다도 더 『위신』이 있어 부대장은 결심을 채택하고 부대는 기세높이 진공을 한다。

우에서 아래에로… 아래에서 우에로!

『상부』의 명령서가 하달되고 궐기시키고 맹세를 채택케 한다。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굵직한 글자가 담벽에 벽보판에 울긋붉긋 나붙고 사람들은 서둘르고… 기계는 돌아가고…… 돌격전의 『결과』는 련이여 『상부』 앞에 전달된다。

『보고! 월 계획 75%를 했음 원인은 계획에서 작업 조건과 생산 준비를 타산 못한데 있음』

『보고! 분기 계획 65%를 했음 원인은 계획에서 원자재와 기계 부속품 확보에 대한 예견이 없는데 있음』

그다음 그다음은 뒤집혔다。 명령이 뒤집히고 맹세가 뒤집히고 『상부』의 『신중성』도『능난한 사람들』의 『계획』도 홀 뒤집히여 현장으로 내닫는다。

—약한 고리는 어데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계획을 가로 막는가……고

그리고는 밤낮으로 회의가 열린다。 브리가다 회의에서 제호 회의에서 총회에서『불꽃튀는』토론들이 현명한 대책을 재촉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실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숫자를 위한 것으로 되고 보니 그럴 수 밖에……

분명히 높은 생산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획이라면 "초과 완수를 위한 숫자"를 짜내는 데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체 실정에 알맞는 생산 준비와 자재 확보 등 모든 조건 보장에도 초점을 돌렸어야 할 일…… 결국 앞 못보는 숫자 때문에 덮어 놓고 만세만 부른격……

그러니만큼 4.4분기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상부』거나 『능난한 사람들』이 정말 단단히 『계획』하고 달라 붙어야만 『초과 완수 만세!』를 웨치게 될 것이다。

보다 앙양된 기세로!

공화국의 석탄 공업 부문 일꾼들은 첫 탄부절을 맞이하면서 온갖 창발적 투쟁을 가강하게 전개함으로써 금년도 석탄 생산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려는 기세로 충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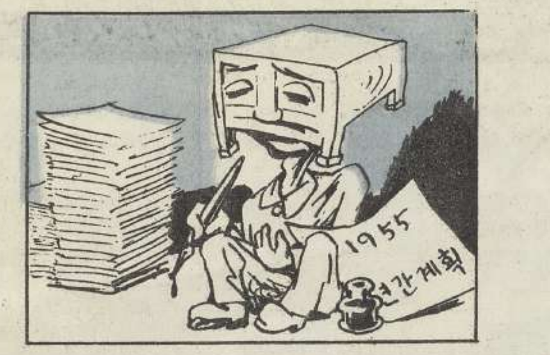
최영근 그림

원인은 명백하다

일부 기업소에서는 월동 계획서만 수립해 놓으면 일이 다 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 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와 기술적 결론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기본 건설과 동기간 생산에서 침체 상태를 초래하는 현상이 있다

안창수 그림

구실 좋은 『계획』



리 춘제 동무가 사업하는 공장의 공무 부장은 "보조 부문이란 원래 주 생산 부문에 응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도저히 계획 과제를 예견성 있게 줄 수 없다"는 구실로써 보조공들을 옳게 발동시키지 못하는 데서 생산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영리한』 계량기

개천 탄광에서는 지난 8월에 국가 과제를 실행한 것이 불과 로동자 수의 20—40%밖에 되지 않으나 이곳 직맹 지도 일꾼들은 그것이 평균 100%를 초과하였다 하여 평균 숫자에 만족하고 있다

작용 못하는 신소함

서흥 광산 건설 사업소 지배인 한 룡운 동무는 신소를 깔아 치우거나 혹은 제때에 처리 못하는가 하면 도리여 자기를 신소 비판한 일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송흥남 그림

『점잖은』 사람

석 팔 봉

말 재주가 능난한 그는
신경이 굵고 매사에 대범하다
아첨군과 말성쟁이들만
점잖은 지배인이라고 『칭찬』한다

언제나 정숙한 표정으로
로동자들의 제의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헐끔한 『선사』들 앞에서는
위신을 차리기에 재능을 발휘한다

—좋습니다 드리죠 그것쯤이야……
곤난할 땐 서로를 협조해야죠—
『점잖은』 사람의 바다 같은 『도량』에
방문객은 모두들 감동한다

—문제 없소 귀중한 건설 자재이지만
당신들도 쉬지 말고 『사업』해야지—
『점잖은』 사람의 드높은 『선심』에
영리한 사람들의 『대접』은 피리를 문다

으리 으리한 그의 집 방안에서
파리도 미끄러져 락상을 당할 지경
밤이면 밤마다 마음껏 취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좋아 한다

허지만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바늘 방석 우에나 올라 앉은듯
마음은 미친듯 심장은 조여든다

어두운 거리를 황급히 달리는
그의 발바닥엔 불이 나는가
—너의들도 수치를 면할려면
입을 막으라 신변을 보호하라— 고

찬란한 태양이 그대를 비최거늘
뜨거운 마음들이 그대를 부르거늘

어이하여 암흑의 구렁에서
숯 같이 검은 마음으로
갈팡 질팡 헤매이는가
신경이굵은 『점잖은』 사람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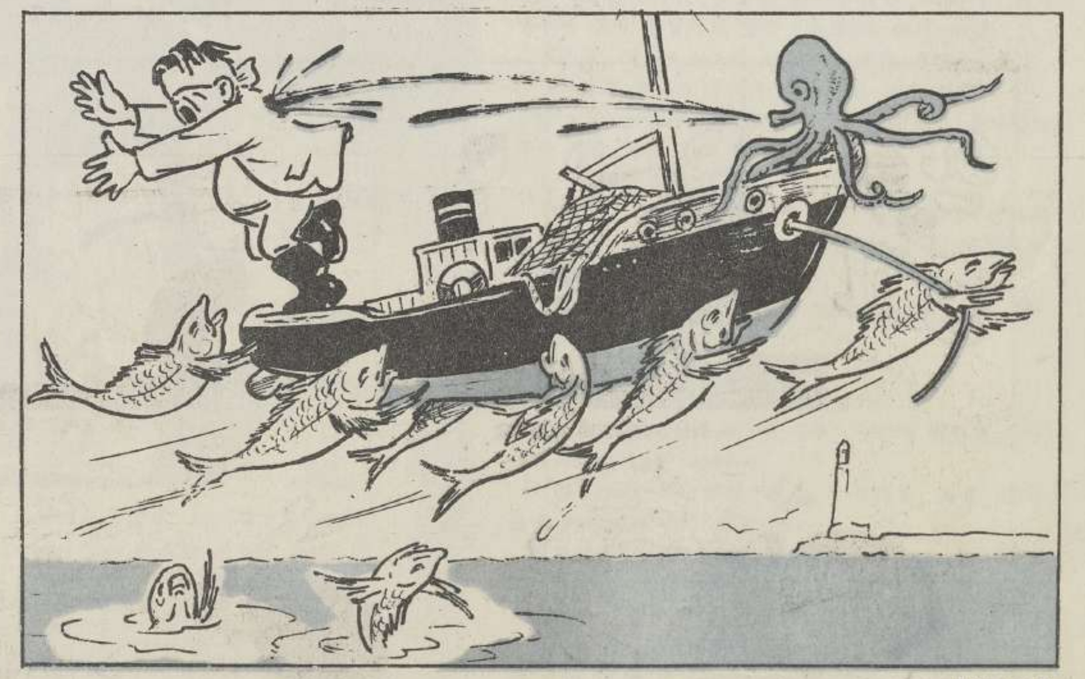
기관차의 충고

교통성 공무국 산하 일부 공무 부문 일꾼들은 철로 보수 사업을 제때에 보장 못함으로써 수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여보! 제발 그러지들 마시요 내 앞길도 위험하지만 당신들의 처지가 더 위험하오

수산성 산하 일부 수산 사업소의 어로 일꾼들은 과학적인 어군 탐사 사업을 적극 진행하지 못하고 극히 형식적인 어로 작업을 하는 결과 어획고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소경 그물 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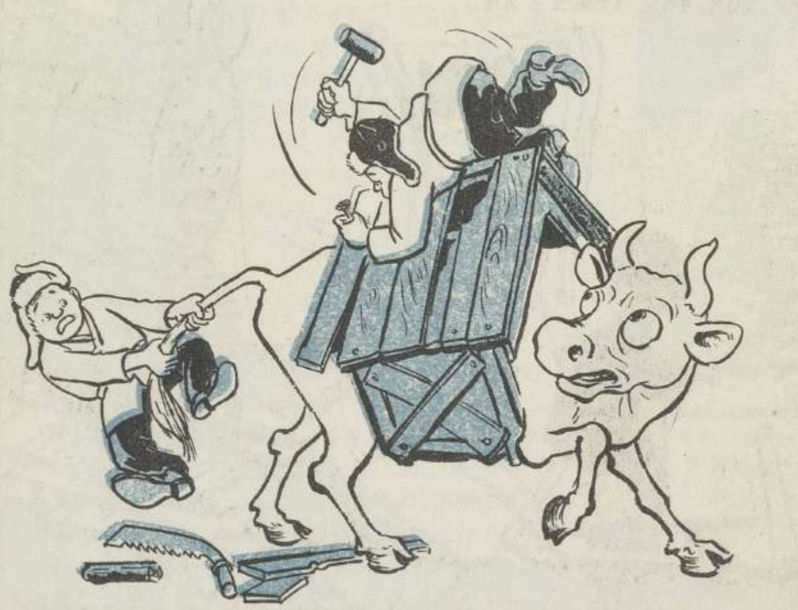


—이런 엉터리 고기잡이꾼은 륙지로 보내야지 동해 바다의 수치가 되겠다

최영근 그림

대체 이게 뭐 요?

—애개개! 요게 겨울 량식이야?!



잔등만 가리는 외양간이로군!

안창수 그림

일부 농업 협동 조합 일군들은 가축의 공동 사육을 무책임하게 진행하는 경향에서 월동 대책도 극히 소홀하게 함으로써 가축 증식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일이 바빠서』

『위원장 동무! 글세 40명씩 한 작업반에 망라되니 우선 작업 분공을 옳게 할 수 없어 랑비되는 로력이 많습니다 그러니 작업반을 다시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말이다。

『괜히 일이 바쁜 때 작업반을 뜯어 고치다 버리통지를 터트린 격이 되면 어쩔라구…… 좀 한가한 때 합시다』

문천군 옥진 농업 협동 조합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남기고 무슨 생각이 났는지 부루루 밖으로……

◇ ◇ ◇

제1 작업반에 이른 그는……

『허허…… 동무네가 여기서 일하는걸 가지구 산에서 풀베기를 하는 줄 알고 공연히 풀밭에 가 헤매였군……』

얼마 후 제2 작업반에 이르러선……

『그렇지! 한데 모여서 일하니 답답지 않아 좋구 사람이 많아 일이 얼른 얼른 끝나 이 논밭 저 논밭으로 이동될 때마다 시원히 바람도 쏘이니 어깨춤이 슬슬 올라 가는데…… 왜 작업반을 다시 조직하려는고…… 허허』

군으로 읍으로 무사 분주히 다니느라고 오랫만에 논밭에 나온 위원장은 이렇게 조합원들의 말을 마이 동풍으로 돌고…… 기름끼 번지르르한 입인사에 열중

◇ ◇ ◇

조합원들은 또다시……

『위원장 동무! 지금 같애서는 로력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작업반의 규모를 적게 하고 또한 작업 정량을 옳게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일이 바쁜 땐데…… 제초 작업이나 다 끝나 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쁠 때 무슨 복잡스레 할 것 있소 로력일 평가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뭘……제1 작업반 김 성구 같은 동무는 원래 몸이 튼튼하구 일 잘하니 1.2 로력일쯤 하고…… 리 근실 같은 동무는 일 잘하는 축이 아니니 0.8쯤 해 두면 되지 않소……』

『그렇게 「인물 본위」로 평가해선……』

『바쁠땐 할 수 없지…… 눈짐작이면 저울이지……』

◇ ◇ ◇

조합원들은 며칠 후……

『위원장 동무! 작업 의욕이 떨어집니다 더러 락후한 조합원들은 공동 작업에서 유리되고 있습니다 박 승환 동무와 장 광욱 동무는 어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몸을 조개 일해도 바쁠 때…… 그런 동무는 당장 조합에서 내 보내야겠소』

위원장의 말에는 서슬이 동동…… 그리고는 또 군으로 읍으로 돌아 다니느라고 무사 분주……

◇ ◇ ◇

그후 이 조합 앞장대 기슭 논밭에는 드문 드문 난데 없는 『꽃밭』이 생기였다。

『저게 무슨 꽃이요?』

『위원장 동무! 꽃이 아니라 잡초입니다』

『허허…… 꽃밭마냥 되였군…… 허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바삐 일해도 워낙 일이 많아서……』

위원장의 눈 앞에는 『꽃밭』이 수만개 노-랗고 파-란 『불꽃』이 되여 오르락 내리락……

『높은 병』

세포군 통일 농업 협동 조합 검사 위원장 김 선규는 키도 남보다 높아 보기 좋고 넓은 얼굴에서 코도 덩실하니 높고 눈도 항상 높이 치떠 위엄성이 있고 두 어깨도 유달리 으쓱 높다。모든게 높으고 높은 것이 그의 『특징』이다。

그러나 한가지 "높은"게 더 있어 곤난……

가로되—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지!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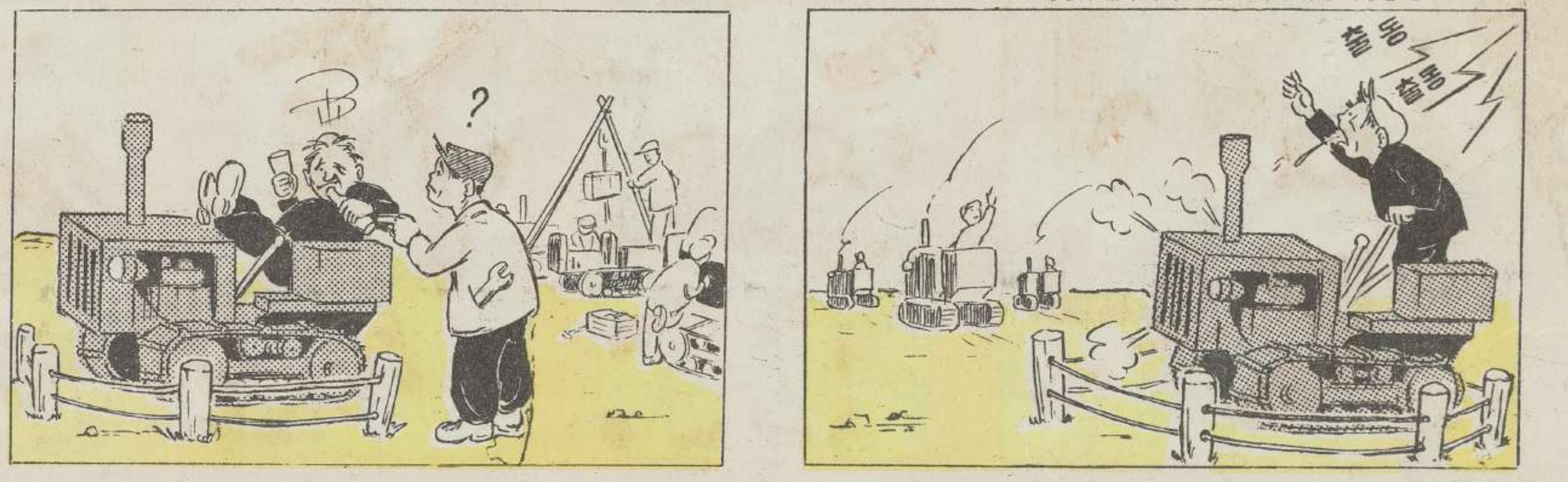
관리 위원장보다도 자기가 『높』다고만 하면서 일은 안하고 우쭐거리는 통에 조합 일은 엉망진창……

류 달

송용남 그림

추경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여름 동안에 뜨락또르 수리 정비 작업을 잘 진행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경소의 일군들 중에는 가을갈이 시기가 되여서야 다급히 서둘러 대는 경향이 있어 추경 사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준다

부지 하세월



—동무! 그러다간 언제 기계 수리를 할테요?
—걱정 말게 아직도 가을이 멀었는걸……

—동무! 무얼하는거요 가을철이 다 가겠소? 최영근 그림
—그러니 어떻게 한담 기계 수리는 해야겠는데…

백인균 그림

응급 치료

세포군 상출리 초방 농업 협동 조합에는 아주 괴상한 『병』이 발생하였다。

『병자』는 신열이 "40도"를 넘어 가끔 헛소리를 치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 ◇ ◇

『위원장 동무! 터밭이 많아야 해요 터밭이 많아야만 조합 일을 하고 집에 돌아 가도 손을 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단 말이요 지금 같애선 작업 시간이 끝나 집에 가면 맹숭맹숭해서 야단이요』

김 기수 농민의 말이다。

『참 좋은 말이요!』

위원장은 연신 고개만 끄덕끄덕……

『나는 잠시도 일이 없으면 답답해 못견디겠소』

『얼마든지 조합 일이 있지 않소? 지금은 물론이고 동기간에도 토지 보호 복구며 부업 경리며 일이 많소』

『아니요 작업 시간 외에 할 일 말이지……』

『그럼 몇 평이나 부치겠소?』

『준다면 1,000평인들 못 부치겠소』

『규약이 있는데 위반하면 되나……』

『우리 손으로 만든 규약인데 우리 손으로 못 고치겠소』

◇ ◇ ◇

며칠이 지나 ……

『위원장 동무! 터밭이 많아야 하우 그래야 무며 배추며 심어 장날이면 팔아 『용돈』도 쓰지……』

『용돈, 허허……그럼 나도 좀 부쳐 볼까……』

『위원장 동무도 부치소 가꾸는건 내가 하지』

김 기수 농민은 『힘』도 세여 조합 일에도 참가하고 자기 채소 밭도 많이 많이……

그 후 작업반에 나간 김 기수 농민은

『요지음 난 속이 맹숭맹숭한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소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운게 아마도 무슨 『병』에 걸린가 보우 난 집에 들어 가우』

『병? 허허…… 정말 병에 걸리였군……』

조합원들의 말이다。

◇ ◇ ◇

군으로부터 『치료단』이 파견되였다。

『치료단』이 『병자』인 김 기수 농민과 위원장 동무에게 『청진기』를 대자……

—가물가물 리기주의 "병균"이 머리를 치여 들어 열이 『40』도를 넘게 되였다고……

『치료단』은 『병자』를 『응급 치료』하였다。『수술』을 하고 『약』을 먹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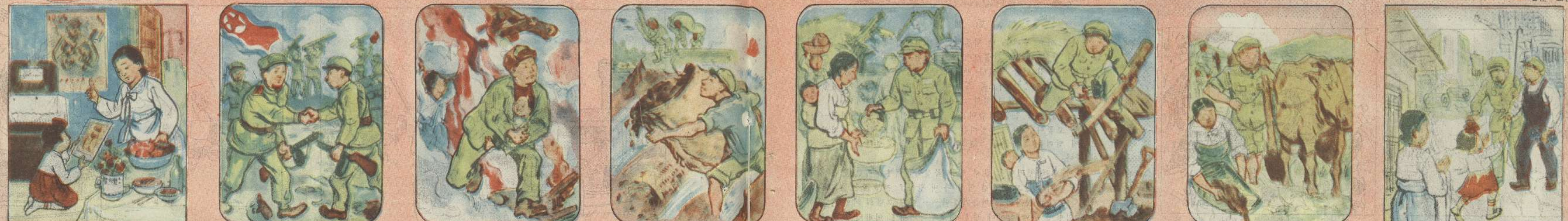
또한 동기간의 부업 경리 및 토지 보호 사업은 하지 않고 『동면』하는 『병』이 특히 이들에게는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 주사"까지 놓아 주었다。

류 달

조중친선

복순 엄마의 이야기

리영춘 그림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 오시는 지원군 아저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 주세요
—그래라 바로 5년 전에 지원군 아저씨는 미국놈을 때려 엎고 조선 인민을 도우려 압록강을 건너 오지 않았니…

…그래서 전선에서 너의 아버지와도 만나 원쑤를 무찌르며 싸웠단다…

…하루는 원쑤놈들의 심한 폭격으로 우리의 집이 불타 버릴때 지원군 아저씨는 불속에서 들리는 애기의 우름 소리를 듣드니 막 뛰여 들어가 너를 안고 나오지 않았겠니…

…그때가 어느 날인지… 폭격으로 제방이 터졌을 때에도 지원군 아저씨는 그래 가마니를 안아 제방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 동리가 무사했었단다…

…이렇게 불과 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지원군 아저씨는 자기들의 식량까지 절약하여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지금 촌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 아저씨가 도와 주어서 지은 집이란다…

…그리고 밭갈이며 추수 때도 한날 한시같이 우리를 도와 주었다
—얘 보렴으나 정전이 된 오늘에도 아저씨는 쉬지 않고 조선 인민과 함께 복구 건설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니

—어머니 저기 아버지와 함께 지원군 아저씨가 오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가요
—그래 5년동안 복순이가 이렇게 자라났거든—

이게 무슨짓이요

—야 이놈의 닭들아 제발 좀 성가시게 굴지 말라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일부 농업 협동 조합원들 중에는 탈곡할 때 완전히 면지를 못하고 많은 낟알이 붙어 있는 것을 그냥 둠으로써 적지 않은 량곡 랑비를 하고 있는 무책임성이 있다

누구 탓을 하랴

겨울 김장에 대한 준비 대책을 예견성 있게 조직하지 못하고 마지막 판에야 덤벼드는 일부 공급 일군들이 있다

최한진 그림

량곡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서는 창고 정비가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건만 아직도 일부 량정 부문 일군들 중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자 들어 오십시요! 당신의 집은 다 되였습니다

—여보시요! 나의 몸집을 보고 말하시요 그래 당신은 금년에 내 몸집이 이렇게 커질줄은 몰랐단 말이요

최한진 그림

풍년가

—동무들의 풍작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안창수 그림

각지 농민들은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 수매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각종 곡물을 비롯하여 공예 작물, 채과, 고공품 등 많은 농산물을 자진하여 국가 수매 기관에 매매하려고 하나 일부 수매 부문 일군들은 수매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목화야 우리에겐 어째서 수매원들이 안 오니…… 그래 우리들은 쓸모가 없단 말이냐……

—여우야 내가 말하지 않았니 우리도 인민 생활에 이바지하게 될거라고……

참을 수 없는 사실

1. —이놈들 내 아들을 달라 남자라고 혼자남은 늙은이 마저 끌고간단 말이냐 이놈들…

2. —개 가족을 덮어쓴 놈들 같으니 그래도 못마땅해서 오막사리 집까지 허문단 말이냐

3. —밤에는 더욱 일하기 좋아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4. —우리들은 원쑤놈들의 손에서 개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네

리영춘 그림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군사 시설 확장으로 인하여 남조선 근로자들은 강제로 끌려가 철야 작업까지 강요 당하면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학대를 받고 있다 강제로 동원된 로무자들은 놈들에게 끌려 나간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진주 목걸이

한 계 홍

진여름 어느 무더운 날 황혼이였다。먼지가 뽀얗게 낀 유리창문은 꽉 닫혀 있었고 덧문만이 반쯤 열려 있었다。

고요에 잠긴 어둠 침침한 방안에 홀로 앉아 종로 경찰 서장 김 왈불은 사뭇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그 어떤 회상에 잠겨 있었다。바로 몇분 전에 생겼던 일이 그지 없이 통쾌했든 것이다。

『……참 벼락 같은 기습이군! 단 5분이 걸렸단 말이지……』값나는 보물이 당장 소용된다는 김 왈불의 암시로 명동 네거리 옥보장에 달려든 졸개들은 5분도 못되여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돌아 왔다。

『아니 이게 웬거야! 글세 진주 목걸이라니! 이런건 온 서울 장안을 뒤져도 둘도 없을걸 이게 다 내 팔자구 재술세! 흥 그놈의 재수덕에 한번 차장이 되려는가부다…… 아니 그년의 치안 국장 마누랄 이번엔 홀딱 삶아야 해! 허영꾸레기년! 이번엔 갈데 없네 치안 국장 녀석은 고매 여우 같은 그년에게 쪽을 못쓰겠다! 그러니 이게 무슨 귀신 덕분이 아니구 뭐야…… 히……』

두 대채의 체스타필드를 젖떨이가에 짓눌러 부비면서 벌컥 일어난 그는 길게 기지개를 케고 나서 중얼거렸다。

『……명월관에나 가자! 이런때 한번 흠뻑 취해보는 것도 좋지 흥! 네녀석들의 공로는 매월이나 초홍일 안겨 주마 하……』

이튿날

치안 국장 관저 라이락 우거진 뜰안으로 부록코—트에 씰크햇으 차림을 한 딸보 하나가 나타났다。딸보에 어울리지 않는 씰크햇으 차림 게다가 거무 틱틱한 얼굴은 서투른 조각사가 흙덩이를 막우 주어 붙인 것 같은 추물이다。새우 눈과 들창코에는 조화가 안되게 넓직한 입은 멋적게 히죽벌죽한다。

생일 잔치에 찾아 온 첫 손인 김 왈불의 어제 환상은 실현되였다。곤색 비로드 도레스에 낯익은 진주 목걸이를 건 국장 마누라는 유달리 반색하며 총총 걸음으로 뛰여 나왔다。

—아이 서장님! 어서 오세요! 무던히 덥지요…… 어서 안방으로 들어 갑시다 아이고 인사가 늦었군요 서장님은 늘 념려해 주셔서……

—웬 과분한 말씀이외다 어데 마님 맘에 드시기나 하는지?!

—아니 그럼 되며 죄송합니다 아주 훌륭한 거애요

(…오홈 이쯤되면 뭣이 될상 싶구나…) 이렇게 속 마음이 간 김 왈불의 심장은 기쁨에 약동했다。

안방에 들어가 앉은 김 왈불은 국장 마누라에게 생각나는 대로 아름다운 말귀란 말귀는 죄다 쏟아 놓았다。

—참 방이 산뜻합니다 마님께선 워낙 문화적 소양이 높으시닝까…… 헤…… 저런 그림은 어데서 다 났나요 정말 실감이 나는군요…… 헤……

—뭘 대수롭지 않은걸요 호…… 수도청 차장 어른이 선물로 보낸 거야요 그러나 그건 내 취미가 아니야요 주인 어른 취미지요 호……(이녀석두 제집엔 여간 내기가 아니군……그러니 내가 아랑곳 할바 있나 그저 선물이고 뭣이고 많이만 가져 오너라 받아는 주마……)

—암 그렇시다 뿐이겠어요 마님이야 만사의 진가를 아시는 분이닝깐요

—호… 그런데 이 춘화도도 차장 어른이 주인께 보낸거야요

—아 그렇서요 그러나?

—아니 서장님 그러나라니 무슨 말씀인가요

김 왈불은 이 순간을 놓지지 않았다。

—아니외다 쓸데 없는 말입니다만 말이 났으니 말이지 백 차장에 대한 말이 굉장히 떠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떠돌아요—

—협잡이란 협잡엔 백 차장이 참견 안한게 없다나요 골목마다 기생첩이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돈화문통이나 명동거리 사창굴을 제집처럼 드나들지요 그건 그렇구 아니 글세 제격에 청장 자리도 아니고 치안 국장 자리를 노리고 지금 막 내무부 장관에게 붙어 돌아 다니지요 저번 국장님이 한양 상회에서 받은 300만환 전도 그녀석이 들추어 낼려고 했답니다 헤… 마님! 참 조심할 인물이야요 국장님 일이 곧 마님일 아니세요

—아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니 나는 알바가 있어요 보통이 아니군요

이때 갑자기 샛문을 밀어 제끼는 와작짝하는 소리가 나드니 대여섯에 난 사내 아이가 엉……엉 울며 방안에 뛰여 들었다。막우 생긴 김 왈불의 눈에도 웃읍게 보이는 추물이였으나 그는 개구리를 삼킨 뱀처럼 그런 감정은 꿀꺽 참고 천연스레이 말을 건늬였다。

—애 울지 말아 응 참 장수 감이구나 개발코는 복코라더라 헤… 눈이크면 겁이 많다는데 네 눈은 크지도 않구… 얘 이리와 응…

백환짜리 지폐 한장을 꺼내 주면서 곁눈으로 힐끔 녀인의 안색을 살펴 보았다(웬일이야, 낯색이 그리 좋지 않은데…… 돈이 적어서 그러나?!) 김 왈불은 얼른 지폐 두장을 더 꺼내 주었다。

—애 울지 말어 옛다 맛있는걸 사 먹어라 응…… 코를 잘 흘리는걸 봐서 장수하겠다

—요녀석 썽큼 나가지 못해 잡년의 새끼!—녀인의 얼굴에는 추상 같은 분노가 서리였다。

어린애가 목청을 털어 놓고 울면서 방에서 나간 뒤에도 한참동안을 김 왈불은 손에 쥔 지폐를 어쩔바 몰라 망서리게 되였으리만큼 뜻밖에 생긴 일에 그만 어안이 벙벙하였으며 온몸엔 식은 땀이 쫙 흘렀다。(오냐 딴년의 새끼로구나 이건 참 실수했는데…)

—마님 난 어른의 말을 저렇게도 안듣는 녀석은 처음 봤습니다 울지 말라니 더 우는군요 험상궂게 생긴 녀석이……

—참 난 그놈의 꼴을 못 보겠어요

—그녀석의 모가지가 자라목처럼 딱 들어 붙었으니 속이 되였을게 뭐야요— 김 왈불은 중얼거리듯 말하면서 힐끔힐끔 녀인의 안색을 살폈다。이말은 분명히 적중했다。녀인의 얼굴에는 어느덧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난 그녀석의 말만 들어도 분통이 치밀어요 그런 말은 그만 두시고 어서 과일이나 잡수세요

마지 못해 김 왈불이 수박 한쪽을 골라 입에 넣으려고 할지음 앞마당에서 떠들석하게 사람들의 말소리가 나고 뒤이여 누가 마루우로 다급히 뛰쳐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창 앞에서 딱 멋었다。

—마님 계서요 저 내무부 장관님의 마님께서 오셨세요

—오냐 알았다

—전 잠간 나가 봐야겠어요 서장님은 사양마시고 푹— 쉬세요

—아니야요 저도 나가 봐야하지요

마당에는 서로 주고 받는 말 소리로 떠들석하였다。에나메르 구두에 나이론 옷 차림을 한 장관 마누라는 모인 사람들의 한 가운데에 거만스럽게 서 있고 그 뒤에는 열여덟 가량난 하녀가 따랐다。치안 국장 마누라는 막 마당에 뛰여나가 몇년만에 만난 친척처럼 장관 마누라를 얼사안았다。

—아이고 이런 날씨에 어떻게 오셨세요 안녕하셨세요 아니 더 젊어 지셨군요 호……

—젊어 지다니요 얼굴에는 주름살만 잽히는데…… 댁의 양장은 아주 어울리는군요 열살은 더 젊어 보여요

—아이고 마님도 과분한 말씀이야요 그저 이렁 저렁 선물로 생긴 것들인 데 뭐 시원한 게 있나요—

—아 그런데 그 목걸인?—내무부 장관 마누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처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말을 중단시켰다。

—마님! 마님…… 그거야요 차장 어른이 보내 준 그 목걸이야요

모였든 사람들의 시선들은 처녀가 가리키는 진주 목걸이에로 쏠렸다。장관 마누라는 못박은듯 한자리에 꽂닥 서 있고 국장 마누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몸 가질바를 모르고 있었다。

—마님! 마님…… 분명해요 옥보장에 고락지를 곤치려 보냈다가 잃었던 그거야요 왜 저를 보세요 제 눈은 멀쩡해요 참 금고락지 세개가 우그러든게 표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요 그 진주 목걸이가 어데서 났소?

그제야 제 정신에 돌아간 국장 마누라는 뒤로 엉거주춤하니 물러 서면서 혼자 말도 아닌 대답을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종로 경찰 서장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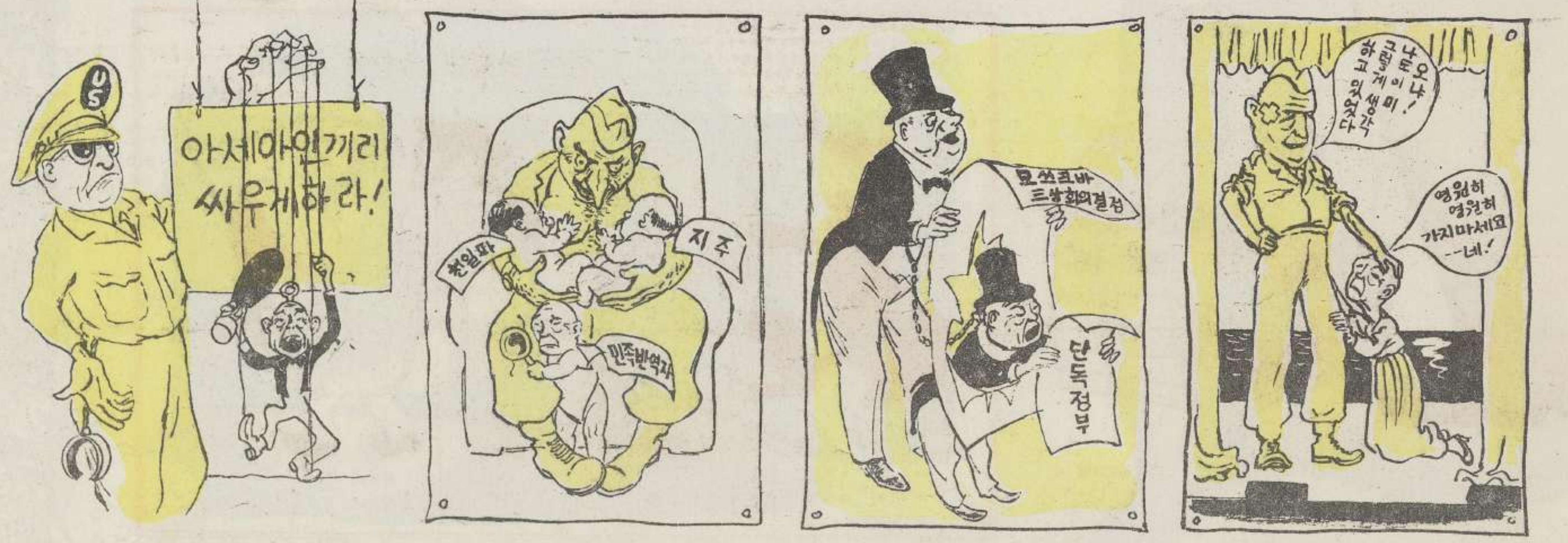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처다보고 서 있든 사람들이 김 왈불을 찾았을 때에는 벌써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응모 작품 중에서)

네 심정이 내 심정

덜레스는『미국은 중립국 감독 위원회 성원들을 반대하는 한국의 감정을 동정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벌이면서 리 승만 역도의 북진 발광중의 일련의 사건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고무하고 있다

박승히 그림

침략자의 론리



타국의 주권을『존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

우리는 곤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했으며…….

『정권』을 주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남아 있어 적극『방조』를 주면서……

더욱 많은『원조』로써『부흥』을 촉진시키는 한편….

우리의『원조』를 북조선에도 확대하기 위하여『북진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하여 고무 격려해 주고 있건만…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나가라 하는지…… 아 하느님 아멘!

박승히 그림

리 승만의 『병충해』

—농작물 수확 감독을 바짝 죄여라

박승히 그림

리 승만 괴뢰 도당들의 농민들에게서 략탈하는 소작료, 수세, 농지 상환곡 등 수십종의 가렴 잡세의 『병충해』는 더욱 혹심하여 남조선 농민들은 참혹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다

쪽집개 소식

『모범적인 역할』

서울에 와 있는 『유•엔군』의 책임 일군들은 최근 "세계 어느 지역도 한국 같이 병원균으로 그렇게도 무섭게 오염된 곳이 다시 없다"고 『통탄』하여 말한바 있다。그런데 한편 남조선 괴뢰 정부의 『보건 사회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는 미군에 의하여 전염되는 성병 관계로 검진 받은 환자가 1954년만 하드라도 47만 9천 6백 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엔군』 일군들은 너무 겸손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남조선에다 성병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선 한 마디의 『자랑』도 없이 무시하고 있으니……

실 천 자

남조선의 경기도 양주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제7사단 소속 토이기 려단의 한 토이기 병사는 끔찍한 만행을 하였다。그것도 백주에 임신 10개월이 된 전 보배라는 조선 녀성을 못된 힐란 끝에 보총에 꽂은 칼로 젖가슴을 찔러 죽였다。

어쨌든 그는 『엠•피』에게 붙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그런데 그는 서슴치 않고 말했다。

『엠•피! 나는 미군에 고용된 후 당신들에게서 "류혈에서 맛보는 쾌감"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소! 결국 나는 당신들을 부러워 한 나머지 "쾌감"에 대한 실천을 해 보았을 뿐이요』라고……

손님들을 위해서

남조선에는 현재 93만 여 호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보건 사회부』에서 발표하였다。그렇다면 최근에만도 6만 3천 여 호의 집을 강제로 파괴한 리유는 어데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게 해명되였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렇게 집들을 파괴하고 내몰면 어떻게 하오?』하고 항의하는 인민들에게 그들—파괴하려 나온 경찰관들은 말했다。

『상부의 지시다! "미국 손님들이 보면 수치니까 판자나 양철쪼박지로 진 집은 모두 없애라고……』

『아니 그럼 좀 쓸만한 집은 다 그 "손님들"이 들고 있으니 집없는 백성들은 어데로 가란 말이요』하고 인민들은 더욱 격분했다。그러나 경찰관들은 곤봉을 휘둘루면서 고함쳤다。

『갈데가 없다고? 훌륭한 형무소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다……』

『헌 건물』과 『새 건물』

최근에 불란서인 로제 보앙에크는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전후 한국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남조선을 려행하였다。

미국의 『적극적 원조』에 의하여 날로 『부흥』되고 있다는 "들은 지식"을 확신하면서 『자유 세계—한국』을 본 그는 자기 기행문에다 이렇게 썼다。

"……서울, 부산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들을 보았다。원조를 주려 온 손님(미군)들은 커다란—이미 있던 좀 『헌 건물』에만 들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원조』로 된 자다란 판자, 양철, 종이쪼박지와 돌을 주어 모아 만든 『새 건물』들에서만 살고 있었다고…

—최근의 남조선 소식에서— 송 화

엄동 설한은 닥쳐 오는데……

낟알은 하나도 남김 없이 깨끗이 훑어 가고……

바락크는 모조리 무상 철거……

석탄 값은 하늘에 별 따기 보다 깜아득………

백인균 그림

자기 비판하는 승정

전차 안에 "운전수와 이야기 하지 말라 라고 써붙인 경고표는 아주 리치적이다。

그런데 "카토릭 활동"당의 령도자인 까루지날 페야쟈는 자기 당원들에게 "공산주의자와 이야기 하지 말자!" 라는 아주 리치에 맞지 않는 그런 호소를 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존경 받는 승정은 카토릭 신자와 공산주의자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허용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그는 언명하기를 "이러한 교제들을 피해야만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론법은 대단히 예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나쁜 결과로써 끝을 맺게 한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판 경험을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는 까루지날은 로골적으로 자기의 론법이 예리하게 빛나지 못했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다。그러다 보니 이 말은 동의 안할 수 없는 사실이지!

이태리 잡지에서

거룩한 발기

최근에 미국 해군 대장 아투쯔—루 레드포드는 유•피 통신이 정확하게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 군대와 또한 "강대한 미국 군대에 의하여 해방돼야 할 주민을 위하여" 4천만부의 성서를 발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여게서 레드포드는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도 직접 "평화에 대하여 가장 진지한 태도로써 노력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 지금 모든 것은 명백하다! 만일 레드포드가 원자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인민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들을 종교에로 인입하기 위한 것 뿐이다。

오! 하느님 아무지시요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히틀러 장교들도 말했든 것이다。

불란서 신문에서

메기와 고래

메기란 라디오 아마취어는 태평양에 사는 고래라는 라디오 아마취어와 관계를 맺게 되였다。메기와 고래는 곧 쉽게 말들을 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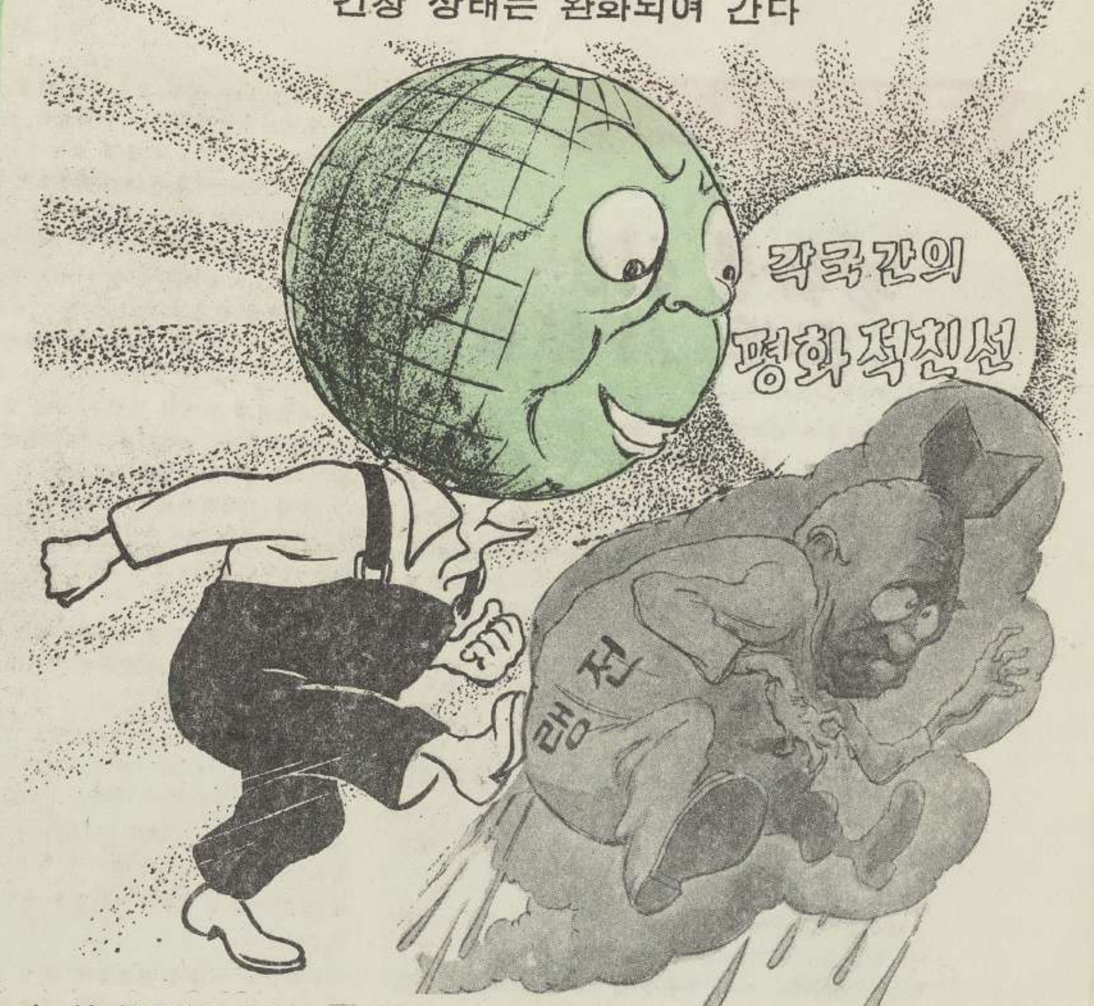
어느날 고래는 메기에게 무선 전보를 쳤다。즉

—쯔!쯔!쯔! 나에게로 헤염쳐 오렴! 여기는 아름다운 고기들이 많네! 꼭 미인을 얻어 줄테니……

—쯔!쯔!쯔! 메기는 대답을 했다。—나는 여기 있는 것이 퍽 더 좋네 자네가 있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수소탄을 가지고 놀지 나의 수염을 훑때 뽑아버릴 녀의 그 수소탄 냄새 나는 방사수보다 이곳 얕은 강물이 더욱 마음에 드네!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총각들에게 있어서 수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유고슬라비아 풍자 잡지에서 (한동신 역)

긴장 상태는 완화되여 간다



유•엔은 자기의 위신을 회복시키며 "제네바의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세계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장진광 그림

현실적인 문제

중화 인민 공화국은 사실상 이미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렬강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세아의 최대 강국이다

래일의 『전망』

일본에서는 보표를 비롯한 각지에서 미 군사 기지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집회가 있었으며 일본 인민들의 투쟁 기세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바 군사 기지 확장에 광분하는 그들(미제)의『전망』은 뻔한 것이다

국제유모어 소개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보루•에피모브 그림

전체 인류가 제네바로부터 울려 나오는 기쁜 소식에 가득찼고 이 도시로부터 전 세계에 "랭전"의 종식과 평화의 공고화에로의 매진에 대한 희망의 빛이 퍼져 나가는 이 력사적인 기념일에 우리들은 에텔을 통하여 괴상한 목소리들을 들었다. 즉 그것은 올빼미들의 우는 소리와도 같고 사람들의 통곡 소리 같기도 하고 까마귀들의 까욱 까욱하는 소리와도 같고 늙은이들의 흐느껴 우는 소리와도 비슷하다.

이와 같은 기쁜 날에 설음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는 이 불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동정하여 마지 않았다. 우리들은 모욕을 당하고 납작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동정에 가득찼으며 또한 "가축을 귀애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격언을 생각하면서 에텔을 따라 날뛰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갔다.

째질듯한 목소리들은 우선 이스탐불에서부터 나왔다. 우리들은 이미 오래 전서부터 아는 친구인 에훼지 얄만을 만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맨땅에 앉아 있었다. 모자는 모로 재껴지고 얼굴은 손톱으로 글쳐지였다. 그는 이리 저리 요동하며 대성 통곡하였다.

—행복하시웁기를! — 우리들은 늙은이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스탐불의 존경 받는 별님! 왜 그러하십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기뜨리옵소서!

—평화는 악마한테로나 가라지! — 얄만은 짖거렸다.

—평화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을 저주하도록 하라!

—그러나 제네바에서 렬강 수뇌자들은 자기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전체 인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성명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요! — 그는 부르짖었다. —그러니 날더러 무엇을 하란 말이요? 나는 다만 전쟁을 호소할 수 있을 뿐이요!

—얄만 진정하시요— 우리들은 늙은이를 위안하였다. —할 일은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저작하시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저작하십시요 그리고 병사와 같이 놀으십시요

—병사와 노는 것을 원하지 않소 병사를 죽이고 싶소! —하고 얄만은 완강하게 말하였다. —아이그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나에게 신문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즉 "유•엔이 창설되였을 때 나는 괴로웠다. 그런데 지금 다시 1945년 쌘프란씨스코에서 체험한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 평화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랭전" 강화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공격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아 내야 한다"라고 얄만은 계속하였다.

우리들이 어떻게 순조롭게 호상 리해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이 불행한 사람을 안정시키도록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아직까지 세상에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력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었다. 그러나 얄만은 더욱 부르짖으며 히스테리적으로 지랄하였다.

어린애의 고함 소리는 우리를 런던으로 끌고 갔다. 이미 오래 전에 유년 시절로 돌아간 홀레루 장군은 발버둥을 치며 터질듯하게 부르짖었다. 즉

—살려 주시요! 쏘련 사람들은 제네바에서 어떤 간계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나 영국 신문들은 그것을 들은척 만척하였다. 다만 몇몇 사람이 늙어빠진 이 어린애를 들여다 보았으나 아무도 그를 따뜻하게 감싸 주지 않았다. 이것을 착한 아저씨인 데위드 로—렌쓰가 미국 잡지 "유나이테트 쓰테이트 뉴—쓰 앤드 월드 레포트"로써 감싸 주었다. 로—렌쓰는 자기의 지면에서 홀레루에게 동의를 표했다.

—제네바 회의에서는 기만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가장한다! 쏘련은 우리 나라들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 이렇게 홀레루는 부르짖었다.

데위드 로—렌쓰는 자기의 꼬마 친구를 보고 가만히 흐느꼈다. 그리고 나서 꼬마를 추겨안고 그를 얼리였다.

이 감격적인 장면에 눈물이 나도록 감동된 우리는 조용히 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친구 헬손 불두인은 도대체 어데 있는가? — 우리들은 회상하였다. —그는 제네바 회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뉴—욕 타임" 신문사의 뒷뜰을 지나 갔다. 그곳 어둑컴컴한 방에 해빛을 보지 못한 허여므레한 미국 해군 대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구라파의 지도에다 빵덩어리를 던졌다.

—으! …… 그는 신음 소리를 냈다. —밤! 밤!

—여보시요 늙은이! — 우리들은 친절하게 그에게 대하였다. —당신은 제네바 회의에 대해서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공고한 평화의 전망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이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지요

—즉 무엇이 있을 수 없단 말씀입니까? — 우리들은 의심스레히 물었다.

—아무 것도 없소 아마 또 있을 수도 없지요— 그는 자신 만만하게 말하고 빵덩어리 폭탄을 런던으로 던졌다. —붕! 뜨르르!

—제네바도 없습니까?

—암 제네바도 없지요 "결코 군비 축소 같은 그러한 현상은 있을 수 없지요…… 전쟁은 인류 사회에 뿌리 박혀 있지요" 붕! 뜨르르!

그는 지도에서 베르린을 떼여 버렸다.

—그러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항상 있을 것이요— 불두인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신문사의 다른 편집실을 지나서 반대 길로 지나갔다. 본사 기자들은 제네바로부터 평화의 길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였다.

우리들은 쌀찌베루겔씨에게 물어보았다. 즉

—헬손 불두인은 당신들에게 어떠한 쓸모가 있습니까? — 그는 수수꺼끼 같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즉

—그래도 아마 쓸모가 있겠지요……

이상한 게사니들의 께억 께억 우짖는 소리는 우리의 귀를 소란케 하였다.

—당신들은 누구요? — 우리들은 물었다. —당신들은 어데로부터 어데로 내쫓기웁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당신들의 우짖는 소리는 서글픕니까?

—우리들은 신문 데마를 산생하는 신문 게사니들이요—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제네바에서 기자들 가운데 있었지요

—당신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로—마를 구원했을 때와 같이 우리들은 제네바에서 떠들어대는 것으로써 "랭전"을 구원했지요 우리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깩 깩 짖었지요 우리들은 부르짖었지요 즉 아무 것도 성립되지 못하리라! 아무 것도 성립되지 못하리라! 고

—그래서?

—아이그 그런데 무엇인가 성립되여 버렸지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깩 깩 짖어대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있는 성의를 다하여 그들에게 유쾌하게 소리낼 것을 원하였다.

—당신들에게서는 그 팔아먹는 지처구의 페도 털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시요! — 우리는 그들에게 강조하였다.

끄로꼬질의 평론가

"끄로꼬질" 22호에서 (한동신 역)

록음실

누가 할 일인가

—저기 오는 분이 우리 동 사무장인가요?

—아닌데요 같은 동리에 살면서 사무장의 얼굴도 모르서……

—언제나 만날 수가 있어야지요 벌써 사흘째나 출생 신고를 하러 다니는데도 글세 사무장 자리는 항상 비였군요

—하긴 나도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언제 와봐도 저 서기 동무 혼자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니 참 무슨 판인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보니 나도 이사를 잘못온 것 같군요 이전에 살던 동리에선 이런 일이라곤 없었는데…… 그러니 이전 며칠을 더 다녀야만 거주 수속을 끝내겠으니 어떻게 한담……

동사무실앞에서 해가 다 질무렵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던 사람들이 저마끔 한마디씩 투덜대는 것이였다.

이때 동 사무장이 들어 왔다.

—왜 우리 사무실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거요? 하고 서기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직인이 없어서 수속들을 못해 주었드니 모두들 사무장 동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퇴근 시간이 다 되였는데…… 우리 련화동에서만 이렇게 로동 규률을 위반할 수 있소? 다들 가라고 하시요 하고 호통을 쳤다. 그리고는 사무장이 태연 자약하게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잠간 회의를 좀 합시다 하는 말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무슨 회의를?

—행정 규률 강화에 대하여!

—?!

고양이의 신소

나는 국가 재산을 좀먹는 쥐와 각성높이 싸우지요. 그래서 우리 상점의 김만종 점장은 나를 퍽 귀여워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요지음은 내게 대하여 매우 무관심해 졌어요. 그래 내 짐작엔 점장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 했지요.

점장은 많은 물건들을 아주 눅게 사서는 고가로 판매하며 또 개인들의 물품들을 사서는 장부에 기입도 하지 않고 판매하기에 무척 바빠 하던군요. 점장이 눅은 물건을 사드릴 때면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 점장은 장사를 잘 한다"고 또 "얼마나 분주하면 장부에 기입할 사이도 없을까?" 하고 점장을 동정까지 하였었지요.

그런데 어느날 오래간만에 점장의 옆에 앉아 있노라니 점장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편지를 읽지 않겠어요. 그 내용은 "동구역 상업 관리소 라병필 소장이 부탁의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미리 보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머니가 이렇게 두툼하게 된 것도 사실은 소장의 덕분이라" 는 편지 사연을 읽겠지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참이나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책상 우로 뛰여 올라가 보았지요.

이때 점장은 "동구역 제2호 상점"이란 도장을 편지 마지막장에 찍고서는 돈뭉치를 종이에 싸기 시작하였어요. 나는 그 후에도 점장이 이런 식으로 돈뭉치를 자주 라 병필 소장에게 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점장이 내게 무관심해진 까닭도 이렇게 엉뚱한 궁리에 바빠서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였어요.

얼마 후에 탐오 랑비에 관한 자백 운동 이야기가 상점 내에서도 있었지요.

그런데 점장은 시치미를 딱 떼고 있질 않겠어요. 나종에야 안 일이지만 라병필 소장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나요! 글세 쥐도 새도 모르는 일이여서 서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들의 량심을 속이면서 입을 봉하고 있지를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특히나 우리 김 만종 점장을 위해서 신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였어요.

흔히 보는 일

—차 안에서—

정주역에서 차에 오른 한 청년은 동행인이 있는듯 자기 옆의 자리에 모자를 벗어 놓았다.

차안은 만원이 되여 서 있는 손님들이 많았다.

그런데 할머니 한분이 마침 그 빈자리를 보고 청년에게 물었다.

—저 모자가 놓인 자리엔 누가 있습니까?

청년은 힐끔 할머니를 쳐다 보드니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비스듬이 누웠다. 그 다음역에서 오른 다른 남자 손님이 빈자리를 찾다가 그 청년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미안하지만 아프시지 않거든 같이 좀 앉아 갑시다—하고 공손히 말하였다.

—동행인이 있다는 데도… 원—그 청년은 짜증을 내다싶이 축 쏘면서 돌아누웠다.

이윽고 저쪽에서 날씬하게 옷 채림을 한 젊은 녀자 한 사람이 빈자리를 찾노라고 이리 저리 살펴 보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힐끔힐끔 쳐다 보던 그 청년은 갑자기 벌떡 일어 났다. 그리고는 『상냥스러운』 눈 웃음을 지으면서

—여기 자리가 비였는데 앉으시지요!

하고 매우 "공손"하게 자기의 『눌 자리』를 양보했다.

—뻐스 정류장에서—

평양역에 도착한 청년은 뻐스 정류장으로 향하였다.

사람들은 일렬로 줄을 지여 뻐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은 아름답게 가꾸어 논 가로 잔디밭에 주저 앉았다. 그리고는 피우던 담배 꽁초는 아무데나 막 버리였다.

청소원이 왔다.

—보도로 나가 주십시요

—뻐스를 기다리고 있소

—그러면 정류장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뻐스가 왔다.

청년은 순서대로 차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밀쳐 버리고서 성큼 차에 올랐다.

자기 앞에 애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서 있었건만 "그런건 아랑곳 없다"는 듯이 그는 괄장을 낀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뒤로 오른 손님들의 날카로운 눈총들이 자기에게 쏠리자 그는 조급스레 소리쳤다.

—차장! 만원인데 그만 태우고 빨리 떠납시다

수요자들의 평가

다치자 마자 까만 머리가 떠러지는 놈, 허리가 부러지는 놈, 탁 그면 번쩍하다가 스르르 시그러지는 놈, 그런가 하면 무섭게 폭발하는 놈 등등 온갖 놈이 다 있지만 불이 일지 않는 데는 공통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신선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삼성표"의 안전 석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성표" 석냥만 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 ◇ ◇

화살에 찔린듯 옆구리에 구멍이 펑해져 공기가 새여 나가는 놈, 좀벌레가 씹은듯 종이에 구멍이 숭숭한 놈, 한쪽 모서리가 째진 놈에 아가리를 떡 벌리고 있는 놈, 보기엔 매끈하나 내장에는 빽빽한 장작개비가 가로 질린 놈, 그런가 하면 썩기를 곧잘해서 "비로 담배"란 별명까지 받게 되며 말지가 술술 풀려서 다시 말아야만 하는 놈, 이것이 바로 함흥 연초 공장에서 나오는 "대동문"담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흥산" 담배만 보면 양미간을 찌프리고 입맛만 쩍쩍……

장 필 순

친애하는 활살편집부 앞

황해남도 신천군 석당리 석당 소비 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냥은 거의가 반갑 정도인—즉 한 갑에든 석냥이 불과 2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판매원 김 진욱 동무에게 물어 보았드니 그건 전천 석냥 공장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나는 전천 석냥 공장에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삼차나 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도 이에 대한 해명을 주지 않고 찰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사실을 친애하는 활살 지상에다 발표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공개 신소를 합니다.

황해 남도 신천군 석당리
석당 우편국 윤 영일

"활살" 문예 작품 현상 모집에 대하여

평양시 중구역 평양 철도 관리국 평양통신구 신 선록 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활살" 독자들로부터 "활살"에서 문예 작품 현상 모집을 하는가 하고 문의하여 온 데 대하여 알리겠습니다.

활살사에서는 어느 때고 독자들의 문예 작품을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호 "활살"에는 『"인민 조선", "활살" 문예 작품 현상 모집』에 대한 광고문을 삽입하여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선전부에 문의하여도 잘 알 수 있을 것인바 그 광고문에 근거하여 친애하는 "활살" 독자들의 많은 응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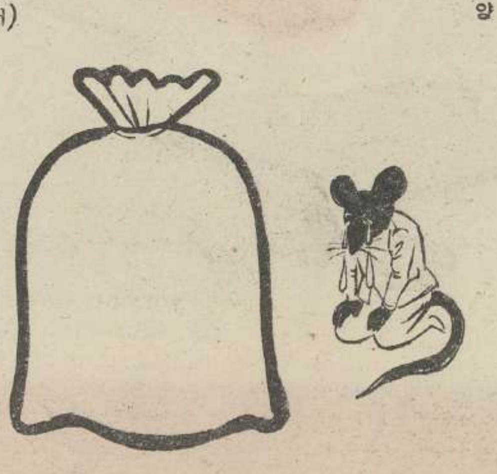
활살 편집부

오락실

(응모 작품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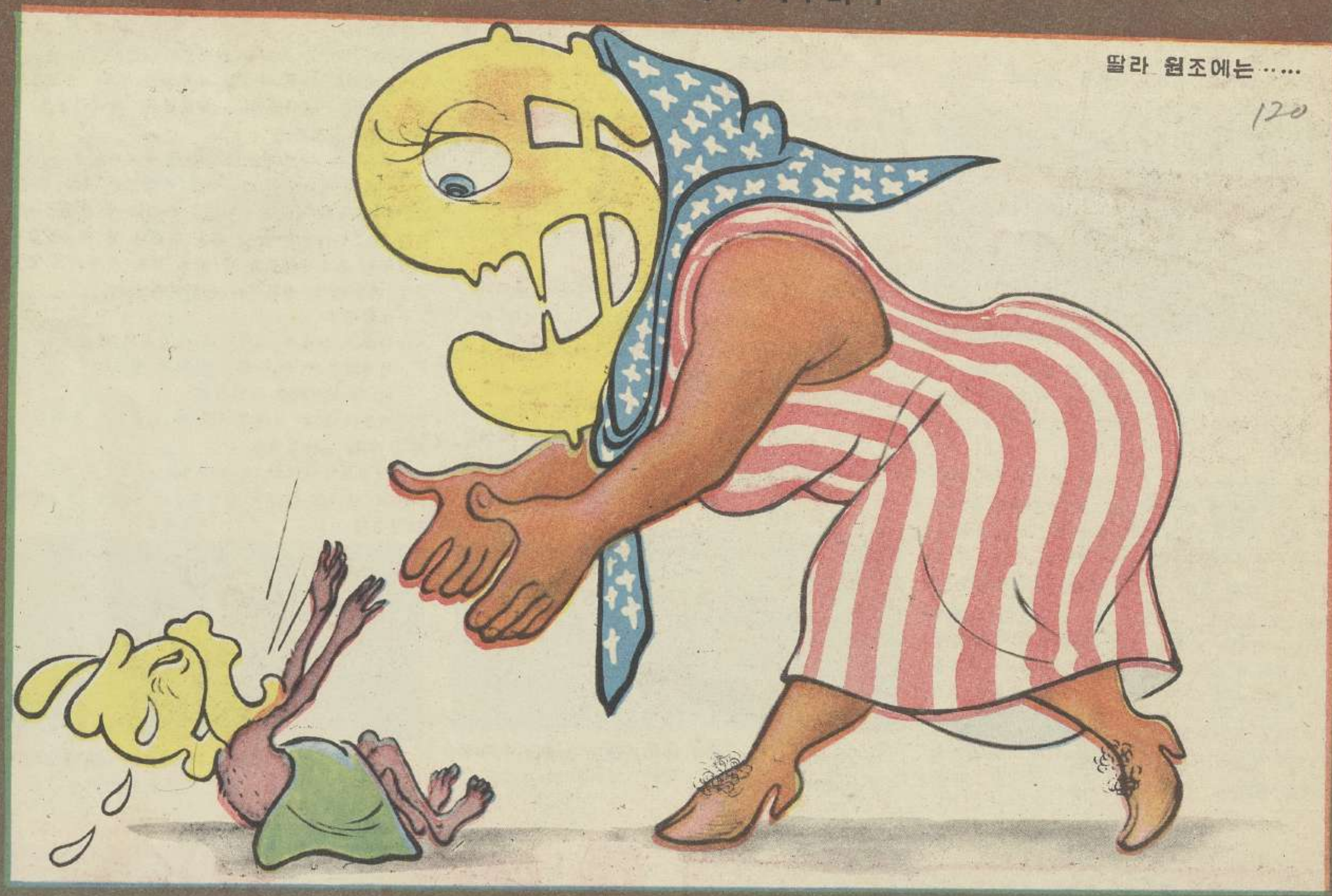
이 만화를 보는 방법은—만화를 눈 가까이에 들고서 왼쪽 눈은 자루를 바른쪽 눈은 쥐를 보룽으로 뜨고 보면 쥐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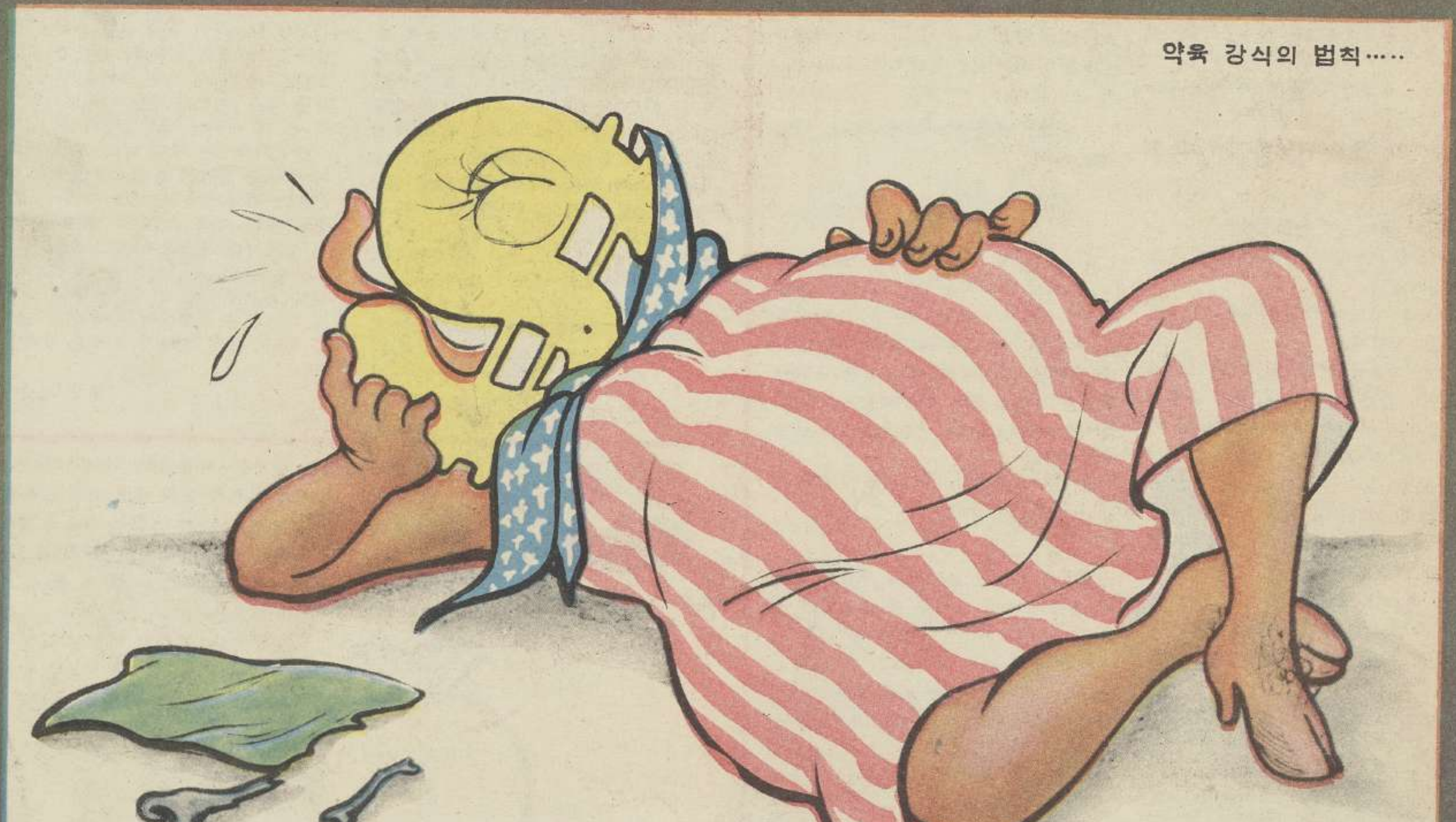
조선 인민군 야전 우편함 제1074호 (근)
양 용 덕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로 발행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 사 인쇄 1955. 10. 1. ㄱ—30192
서 만 일 신 불 출 리 갑 기 정 현 웅 인쇄소 국 립 종 합 인 쇄 소 발행 1955. 10. 15. 값 (50원)

마음보가 고약한 딸라 아주머니





괴뢰 리 승만 정부의 경제는 딸라의 500대 1의 환산률로 하여금 파멸에 직면하고 있다

장진광 그림